인종차별과 인종구별

(고후6:14~18)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종차별과 인종구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비교적 외국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느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인종차별을 당한 건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라고는 하지만 외국과 비슷하죠,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그것도 대부분의 미군들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마는, 특별히 새로 부임한 저희 shop의 chief 에게 차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해서 미군 명령계통과 정면으로 부딪쳐서 그야말로 혼자 투쟁을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분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 변화가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고 하는 차별주의도 공식적으로는 사라졌고, 호주의 백호주의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곳곳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의 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말 속에는 편견과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차별대우의 뜻이 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꼭 흑인과 백인, 황인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종차별의 형태가 아니라도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대우나 편견, 그리고 보통 시민과 전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 또 외모에 따른 편견과 차별대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째 세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죠?
예쁜 외모를 갖고 태어난 여자와 예쁘지 않은 외모로 태어난 여자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물론 예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게 다 인종차별의 형태를 달리한 현실적인 모습들이라는 얘깁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종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차별이라는 말은 구별의 뜻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구별된 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만, 제대로 말하자면 차별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차별을 하되, 우리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인종차별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종구별을 지향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 밑에 내가 있고 내 위에 사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종구별이 돼서 사람 밑에 내가 있고 내 위에 사람 있는 상태가 돼야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인종구별이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라는 단체는 없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래의 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되는 사도바울의 말씀 중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종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종구별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고, 앞에 나왔던 화목케 하는 직책수행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개신교인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그렇게도 전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회성장에 뜻을 두고 연구하고 그 길로 치달아도 교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인종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믿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들어보면,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종류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결혼문제 같아요, 결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 동업하는 것.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는 얘기가 확장돼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친구도 믿지 않는 자를 사귀지 말고, 애인은 물론이고 직무상 함께 해야 될 파트너, 팀, 학교에서의 동아리 모임, 이런 걸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확장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열어둡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될 수 있다면, 또 확장되어서 친구, 애인, 동업자, 파트너, 동아리, 직장동료 등 확대해서 모든 경우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끈끈한 관계인 결혼이 믿지 않는 자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믿지 않는 자와 맺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할 수 있지만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일단 논리적으로 해놓고,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때 모순이 돼 보이는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는가?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허락했습니다, 근데 멍에는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했더라도 멍에는 같이 매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는 나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지만 거기에 인종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나와 배우자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함께 포함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 전도의 가능성도 생기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의 수행도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겨리라는 게, 한 겨리라고 하면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매서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즉, 멍에 하나에 소가 두 마리 들어가 있는 상태를 한 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다고 해서 나귀를 끌어다가 한 멍에 안에 소와 나귀를 같이 매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한 멍에 아래 두 마리 짐승이 함께 묶여있으면 둘 다 소이거나, 둘 다 나귀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한 멍에 안에 묶였다고 볼 때에, 그렇게 묶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둘 다 소이기 때문에, 둘 다 나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한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는 결혼을 하지 말라, 파트너가 되지 말라, 애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류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돼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설령 애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되는, 다시 말해 그가 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다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맸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몸을 부딪치며 함께 살아야 하지만 그들이 나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들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얘기에요.
결혼은 하되 동류로 인식하지 말라, 부부인데도 믿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도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쪽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대와 고대가 연고전을 벌이지만 연대 학생 중에 믿는 학생과 안 믿는 학생은, 같은 대학 같은 과 학생이라도 '우리'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아니라는 의식을 연고전에서 응원할 때도 기억하라 이겁니다.
연고전에 가서 응원할 때는 연대 학생은 무조건 연대가 우리고, 고대 학생은 고대가 우리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열띠게 연대라는 소속감, 고대라는 소속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는 구분을 잊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보면서 나왔던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이전의 상태 그대로 있는 자들과 같이 동류로 취급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맨다, 동류로 취급받는다.
아니면 나 스스로가 '같은 인간이다'라고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인격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람과 동류로 취급돼서는 안 되고, 나 스스로도 구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과일칼로 삼아가지고 육체에 근거된 삶의 내용들, 이 세상에서의 신분 지위 모든 것들을 깎아낸 상태의 알맹이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 인격적 알맹이가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데, 그 인격적 알맹이가 육체적인 삶의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전무한 사람과 동류로 여겨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은 자신의 인격적인 알맹이가 믿지 않는 자의 인격적인 알맹이와 똑같다고 적극적으로 인정은 안 하더라도 묵인해버리는 것이거나 구별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교회라고 이름하는 단체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교회다움이 없어짐으로써 교회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종차별과 인종구별의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인종차별은 전적으로 육체에 근거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백인 황인 흑인, 이런 것 또, 외모에 의한 차별도 그런 것이고, 이런 육체에 직접적으로 근거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자와 가난한 자, 재벌 3세들끼리 노는 데가 있다면서요, 즉 재벌 3세들은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 자식들과 함께 섞이지 않습니다, 결혼도 그들끼리 해버립니다.
이런 게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종차별이란 것은 육체에 근거돼있는 것이에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차별대우, 전과자와 일반인 간의 차별, 모든 게 다 육체에 근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종구별이라는 것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전과자라는 육체에 근거된 그의 삶의 이력을 십자가 칼로 사과껍질 깎듯이 깎아내 버리고 맙니다.
전과자라는 육체에 근거된 삶의 내용을 깎아내고 그 알맹이만 봤을 때, 그 알맹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력이 창녀였더라도 창녀는 육체에 근거된 삶의 내용인데, 십자가에서 그 여자가 죽음으로써 그 인격적인 알맹이가 지금 전적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한테 잘하고 친절한 여자 분이라도 그 인격적 알맹이가 하나님께 의존돼있지 않으면 나와 구분해내야 되는 남이라 이겁니다.
설사 그 여자가 내 아내라도 믿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창녀였다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여자가 '우리'지, 믿지 않는 아내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현장은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인종구별이라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로 육체와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다 깎아내고서야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박 근혜 대통령을 볼 때도 우리가 보는 것은,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볼 때, 십자가로 박 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육체에 근거된 삶의 내용을 다 깎아내고 난 뒤에 그 박 근혜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적 알맹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의존되었는가 하는 영성으로 인종을 구별해낸다 이겁니다.
그래야 박 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구별이 안 되면 맨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서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박 근혜 대통령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건희 씨를 대할 때 십자가로 육체에 근거된 삶의 내용을 깎아내고 그 인격적 알맹이에 들

어있는 영성의 수준과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건희 씨에게 '나와 같이 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종구별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전도를 하긴 하는데, 전부들 어떤 의도에서 하느냐 하면, 전도상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전도를 강조할 때는 부흥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러니까 전도가 파워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십자가로 먼저 도려내고, 그 인격적 알맹이를 딱 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성의 정도를 파악해서 그대로 때려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분이 가야 때리지요, 어디다 대고 때립니까, 구분이 안 가는데.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게만 하고 우리 교인으로 적을 두게끔만 하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파워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은 어떻게 백인과 흑인이 같이하느냐, 어떻게 전과자와 우리가 같이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창녀였던 여자와 같이할 수 있느냐?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인종구별은,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없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벨리알과 예수그리스도가 구분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인종구별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직장동료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우리'라는 weness, 우리라는 의식으로 대한다는 얘기에요.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근데 우리가 될 수 없는 자들과 결혼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애인도 될 수 있고, 직장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에 살고 있고 유럽에 살고 있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육체에 근거된 삶의 내용을 깎아냈을 때, 그들의 인격이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고, 전과 7범이라도 지금 그 사람이 십자가로 삶을 깎아내고 봤을 때 그 알맹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창녀였던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창녀가 어떻게 함께하느냐 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창녀를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인종구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창녀가 훨씬 더 하나님께 의존되기가 쉬운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다시 말해 교회가 생길 때 교인 제1호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종구별과 인종차별이에요.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고, 창녀와 세리 같은 자들은 남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그것은 인종차별이니까 인종구별을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있지 않은 자들이고,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께 의존될 수 있기 쉬운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로 포함시켜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로 나 자신을 깎아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깎아본 뒤에 그 사람의 인격적 알맹이를 보면서 구분해내심으로써, 나와 다른 자가 있다면 그에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인종차별은 지양하고 인종구별은 지향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화목케 하는 직책이 수행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이 내게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